

9월중 동남권 산업생산 동향

□ 9월중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.8% 감소. 3개월 이동 평균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42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(2014.4월 및 2015.1월의 3개월 이동평균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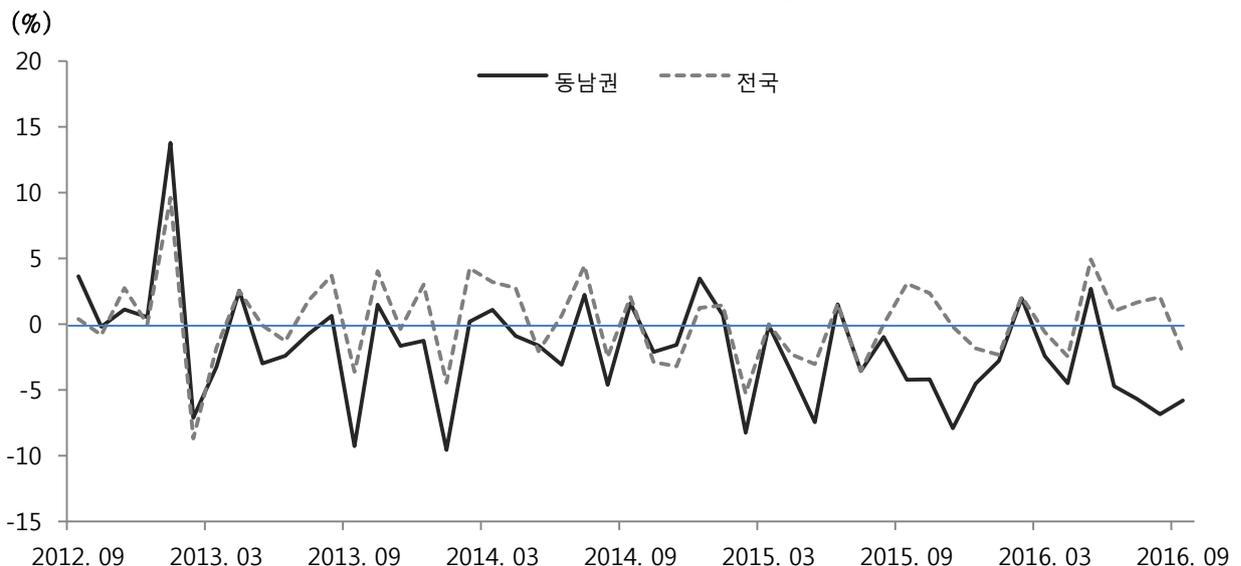
※ 동남권 제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(원지수, %)
 △4.7(6월) → △5.7(7월) → △6.8(8월) → △5.8(9월)

- 업종별로는 화학(4.7%)이 증가했으나 자동차(-18.9%), 기계(-13.3%), 조선(-7.3%) 및 철강(-1.2%) 등이 감소

* 자동차 생산은 르노삼성의 닛산로그 연식변경에 따른 수출 감소(-6.5%) 및 현대차 부분파업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

- 지역별로는 부산(-11.1%), 울산(-5.3%), 경남(-4.5%) 모두 감소

<동남권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>



주 : 전년동월대비 증가율

□ 9월중 동남권 대형소매점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.7% 증가

※ 동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(불변지수, %)
 11.2(6월) → 7.9(7월) → 3.1(8월) → 3.7(9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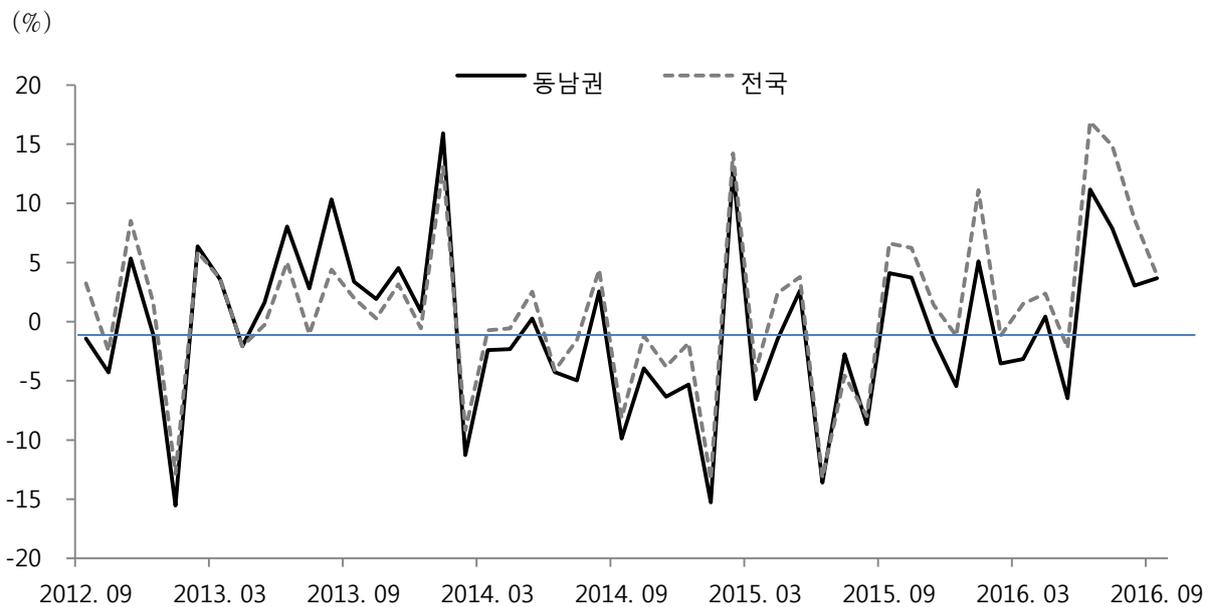
— 백화점(0.2%), 대형마트(5.9%) 모두 증가

* 추석연휴 효과(전년대비 +1일) 및 정부의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정책 등의 영향에 주로 기인

— 상품별로는 가전제품, 신발·가방, 화장품 등은 증가했으나 오락·취미·경기용품, 음료식품은 감소

— 지역별로는 부산(5.4%), 경남(7.0%)은 증가, 울산(-6.5%)이 감소

<동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(불변가격) 증가율>



주 : 전년동월대비 증가율

담당: 백충기 수석연구위원
 김민준 책임연구위원
 Tel. 051) 620-3186